

2) 체 조

체조는 1895년 4월 16일 한성사범학교의 관제가 반포되면서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후 갑오경장 전후의 신진사상이 체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때의 체조는 거의 체육 일반을 교과목적으로 상징하는 의미였다.

이렇게 시작된 체조는 1907년 10월 17일부터 3주 동안 학부 주체로 체조강습회가 열릴 정도로 발전, 전파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체조가 본격적인 근대체육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 국민체육의 특성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동안 체조교육의 중심 내용이었던 병식체조에 대한 반성과 개혁의 움직임을 시도했던 1909년부터이다. 당시 휘문의숙의 체조교사였던 조원회는 병식체조가 한참 신체발육 과정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별로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해로운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용술·정형술의 신식체조법을 개발하여 일반학생들에게 널리 보급시켰다. 또한 일본인 교사 요코치는 체조에 음악을 이용하여 원활한 리듬감을 활용하는 등 정서적인 측면을 강화하였고, 곤봉 등 기구를 사용한 체조의 묘기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였다.

1927년 중앙기독교청년회 체육부에서는 일반에게 보급되는 운동기술을 더욱 장려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상금을 내걸고 철봉대회를 개최하였다. 그후 1931년에는 제1회 전조선기계체조대회가 중앙기독교청년회 주최로 열리게 되어 체조형식·내용·제도 등이 점차 정상화되었다.

1935년에 순천공립농업학교가 설립되어 당시 동경체전을 졸업하고 순농에 체육교사로 부임한 차준철이 체조를 보급하였다. 1940년에는 순천중학교에 마쓰무라가 체육교사로 부임하여 기계체조를 보급하였다.

순농의 차준철의 제자 중 신병식·고봉영·안혜련·이형운·고남귀는 그 기능이 특출해 당시 고도의 텀블링 및 조립체조(피라미드)·기계체조에서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였다. 특히 이형운은 체육을 전공하여 전남의 각 중등학교(순천농업·광주사범·광주일고·목포중학)에서 근무하면서 전남대표 선수를 양성하였으며 순천대학에서 정년퇴직하였다. 그의 순천농업학교 제자 중 김경수는 실력을 인정받아 1964년 제18회 동경 올림픽대회에서 한국코치로 활약하였으며, 1967년 8월에는 동경 유니버시아드대회에 국제심판 겸 한국대표 선수를 인솔하여 한국의 체조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1974년 제7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지도자로 파견되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하는 등 국위 선양과 체조경기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다.